

역사학자 의견서

KBS제주방송, <암살 1948>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천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역사수호위원장

4월 2일 금요일, KBS제주방송에서 4.3사건을 겨냥한 특집, <암살 1948>이 방영되었다. 마침 2월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얼마되지 않는 시점이기에 제주4.3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상한 주목을 끌었다. 필경 역사적 왜곡으로 점철된 특집방송일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방송내용은 시종일관 암살자 문상길 중위를 정당화, 미화한 것이었기에 짐작은 했지만 가히 충격적이었다. 문상길은 부하인 손선호 소위를 사주하여 야밤에 승진축하 파티를 마치고 잠이 든 박진경 대령(제주 파견 9연대 연대장)의 암살을 지시했는데, 공영방송인 KBS제주가 73년만에 문상길 중위의 군 반란행위를 미화, 정당화하는 프로를 방영하였던 것이다. 이는 제주4.3의 성격을 재조명하는 연막탄을 쏘면서, 내심 동기는 4.3사건의 폭동성과 반역성을 은폐, 뒤집으려는 음흉한 책략의 다름이 아니다. 기획의 주인공은 김정중 PD였다.

첫 번째 문제로 4.3사건에 대한 역사적 좌편향 인식이 도처에 뜨인다. 방송의 첫 장면은 제주 남로당 반란과 무장폭동을 일으킨 인민해방군에 대한 용어가 삭제되고 ‘무장대’로 기술하고 반란과 불법적 폭동행위를 ‘봉기’로 기술하여 시청자들로 하여금 용어혼란을 일으키도록 교묘하게 유도하여 반란과 폭동을 미화, 정당화하고 있다. 辭典的(사전적) 차원에서 ‘武裝隊(무장대, Armed Forces)’란 폭압과 폭정에 견디지 못해 저항하여 혁명을 시도하려는 무기를 든 무고한 시민들이란 의미를 내포하여 마지못해 자체 무장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원래 기술되었던 ‘인민해방군’이란 용어와는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 또 ‘蜂起(봉기, Uprising)란 의미는 “(대중들이) 폭정에 견디다 못해 저항하여 떨쳐 일어난다”는 의미가 있다. 원래 서술되었던 반란(Rebellion), 폭동(Insurrection) 보다 의미가 훨씬 미화된다. 즉 방송에서 보여준 4.3사건은 선한 제주시민들이 미군정과 이승만정부의 폭정, 폭압에 분노하여 떨쳐 일어나 무장하여 반정부 투쟁을 벌였다는 분위기를 깔고 있다. 이것은 국가가 강제력을 발동해 범죄자를 진압한 행위를 범죄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시각이라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다시 말해 KBS제주는 반성하지 않은 남로당(공산당)을 대변하는 방송기관임을 드러내고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둘째로, 방송은 인민해방군 총사령관 김달삼과 협상하려했던 9연대장 김익렬 중령의 ‘평화협상’을 높이 평가하는 반면, 최선을 다해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다가 불귀의 몸이 된 박진경 대령을 비난한다. 김익렬의 협상 성사의 가능성이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김익렬의 협상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달리 말해, 김달삼이 어떤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협상 성사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없다. 그냥 김익렬의 유고 원고에서 인용된 강경진압 구절만 보고 박 대령을 비난한다. 위증의 논란이 많은 김익렬의 회고록에서 “제주도민 30만명이 죽어도 희생되어도 좋다.”는 구절을 인용하였다. 이것이 문상길 중위에게 자극이 되어 암살 거사를 단행했다는 논리다. 방송의 논조는 무고한 제주도민의 희생을 막으려고 했던 김익렬 중령이 해임되고 그 후임으로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강경책을 비판하는데, 이것은 간접적으로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강경진압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역사학자 해설자의 인용을 빌려서, 박 대령은 “미군 말을 잘 듣는

군인”으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최선을 다해 반란을 진압하려했던 박진경 대령의 희생과 그의 군인정신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

<제주4.3항쟁>을 쓴 양정심은 인터뷰에서 “일제시대에서 친일경찰과 미군정의 횡포가 식량문제 등에서 분명히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4.3사건이 제주남로당의 기획에 의한 선전선동 및 폭동이라는 점을 감추고 있다.

셋째로, 4.3사건의 원인을 3.1행사로 보는 것은 역사왜곡이다. 방송에서는 “말을 탄 기마경찰이 어린아이를 치어서 혼란이 가중되었고, 경찰이 발포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많은 군중이 몰렸는데, 경찰은 이 대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였고 군중들은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남로당 추종세력이 의도적으로 교쟁으로 경찰의 말 항문을 찢렸고, 통증을 느낀 말이 날뛰게 되면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언급은 없었다. 시기적으로도 4.3폭동은 1948년이고, 3.1절 행사는 1년 전인 1947년에 있었다는 점에서 연관이 없다.

넷째로, 경남 남해에 있는 박진경의 비석과 동상에 대한 평가이다. 해설가는 박진경 대령이 경남 거제 비석에 “적의 흉탄에 맞아서 사망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남로당 프락치인 부하 문상길 중위와 손선호 소위에 의해 야밤에 잠이 든 상태에서 무참하게 암살당했다고 떳떳하고 정확하게 기술했어야 하지 않을까? 좌익단체들이 끊임없이 박 대령의 동상 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동상철거운동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문상길 중위의 정체에 대한 공영방송 KBS의 인식이다. 방송은 문상길과 그 부하들이 암살을 저지를 때, 정체가 군내부에 침투한 남로당 프락치인 엄연한 사실을 애써 숨기고 문상길이 유독 안동 출신인 점만 되풀이 강조한다. 죽임을 당할 줄 알면서, 왜 살인을 저질렀나? 그는 ‘제주도민 살리기 위한 확신범이었다’는 논리이다. ‘그는 안동의 독립운동가 혈통이다.’ 이점을 강조한다. ‘군인의 꿈은 통일정부수립이다. 同族相殘(동족상잔)의 비극을 막기 위한 자기희생이었다’는 평가는 대한민국 반역자에 대한 칭송이다.

마지막 장면 처리에서 해설사는 “제주도민을 아우르려고 했던 (김익렬) 장군이 제거된 것은 비극”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비현실적인 낭만적 결론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남로당의 지령에 의해 ‘단선단정’을 반대하는데, 타협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건국을 방해하고 공산화된 통일정부를 주장한 제주남로당과 인민해방군 소속 무장단체들을 강경진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제주도해방구를 승인하라는 말인가? 제주도가 공산화된 통일정부의 전초기지로써 해방구로서 존재했다면 피를 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늘날 제주도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섬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제주도민들은 오늘날과는 달리 자유를 상실한 공산치하에 살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방송되는 공영방송 KBS에서 이정도로 좌경화된 의식을 가진 ‘암살’이란 프로를 감히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대 경악할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